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우주에는 신이 없다

과학과 종교간 논쟁을 다룬 변역서가 최근 출간됐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의 허구를 지적한 책이다. <우주에는 신이 없다>는 30여년간 무신론자로 살고 있는 데이비드 밀스(David Mills)의 저서이다. 밀스는 뉴욕에서 전 세계 심리요법 치료사에게 배포한 심리학 서적과 자기개발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나사(NASA)의 우주왕복선을 취재하는 기자로 활동했다.



데이비드 밀스에 따르면, 기독교의 핵심교리인 창조론은 허구 내지 설화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신화다. 특히 그리스나 로마의 신보다 기독교 신을 믿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논리의 법칙을 보더라도 신의 존재는 믿는 사람이 입증해야한다. 물론 진리로 수긍할 수

자유사상가를 위한 종교탐구

있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반면에 명확한 반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믿어야 한다면, 왜곡된 논리 때문에 허구를 실제로 믿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진리에 대한 자기검토는 신을 받아들이도록 세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종교가 주는 위안은 무엇 때문일까? 죄의식과 불안 때문이다. 성령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회개를 통해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자신의 내적 감성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성령이라고 믿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로 위안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감정의 과잉이 성령이 실재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정신적 경향을 밀스는 신성화 최면이라고 부른다.

데이비드 밀스는 예수에 대해 역사 인물이 아니라 주장한다. 예수에 대한 역사 기록은 있지만,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기록자 요세푸스와 타키투스, 순교자 유스티노 등 6명의 학자와 순교자를 거론한다. 그러나 모두 예수가 처형당한 후 수십 년 이내에 태어나지 않았다. 즉, 예수 당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 예수 생애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자료도 없다. 다만, 예수 기록이 집필되던 시기에 그리스도의 전설(傳說)이 있었다는 증거는 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몇 십 년 후에 예수 생애를 언급했던 사료 제 공자들은 예수와는 전혀 별개인 수많은 기록을 행하는 자들의 생애와 민간전승도 상세하게 전했다.

저자는 서두(序頭)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예나 지금이나 옹골하고 꿋꿋하게 과학적 방법론에 헌신하여 공동체를 암흑시대에서 벗어나게 한 세상의 모든 자유사상가들에게 바칩니다." 이 책은 2004년 4월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 영어권 지역에서만 300만 부가 팔렸으며, 판매중인 상위 1% 도서 가운데 10분의 1에 속할 만큼 꾸준히 판매되는 화제작이다.

우주에는 신이 없다 | 데이비드 밀스 | 권혁 옮김 | 돌출세김 | 1만8000원

진정화

동아시아 하나로 만든 접착제 불교

석길암 교수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아주 간단하게 동아시아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사람들에게 '人'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고 사람들은 '人'을 다르게 읽지만 뜻은 한 가지로 인식한다. 또 다른 구별방법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대승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속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베트남은 한자문화권에 속하기도 하지만, 임제종 계열의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 당나라 시대에 변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 그 문화를 주변 지역에 전파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고, 그때 전파된 문화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전체에 통용되고 동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요소는 '한자'와 '불교문화'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아시아 문화권 지역에 불교가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다. 이미 존재했던 동아시아 사회에 불교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불교가 전해지면서 그 불교에 의해 동아시아라는 문화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인 석길암 박사는 최근 펴낸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에서 "중국에서 시작된 한자와 중국에 새롭게 전해진 불교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아시아 사회 전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동아시아'라는 사회·문화·사상이 형성되면서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했다"며 "따라서 한자와 불교는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접착제 같은 것이었다"고 말한다.

불교를 축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한 것은 중국인들만이 아니다. 인도인, 이란인, 실크로드 도상의 유목민, 중국인, 몽골인, 티베트인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 동아시아 불교문화 네트워크 건설의 주역으로 참여했다.

저자는 "동아시아 불교문화 네트워크는 당시의 '세계인들'이 만나서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서 만들어 냈던 것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문화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불경 번역자가 인도 혹은 서역 출신이었다는 것, 또 중국인들이 받아들인 불교사상과 문화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데는 중국인들만이 아니라 인도 및 서역과 중국 주변의 이민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그렇다. 일례로 중국불교의 4대 보살신앙의 성지 중에서 관음보살 성지인 보타도와 지장보살 성지인 구화산은 신라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에 말미암은 것이었고, 전형적인 중국불교로 일컬어지는 선종의 흐름에서 사천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티베트까지 영향을 미쳤던 검남종은 신라출신 김부상 선사에 의한 것이었다.

석길암 박사는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진행했던 '한국 구법승들의 중국 내 활동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HK사업에 참여하면서 불교사상의 동아시아적 변용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한 자료를 축적했고 이를 이야기로 풀어냈다.

책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원을 전후해 전래된 불교경전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 즉 역경이 중국의 정치 및 사회 문화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역경승과 구법승들은 단순한 종교적 구도자가 아니라 인도와 중국 두 문화를 통합하는 문화사절이었으며, 최신 정보의 전달자인 동시에 생산자였고, 정보판단의 주체였음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를 사용한 <42행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해 <직지심체요절>을 인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양과 같은 인쇄혁명이 동아시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아마타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돼서 동아시아에 널리 전파될 수 있었는지, 출가수

행자가 탁발해서 얻은 음식만으로 생활하도록 되어 있는 구족제를 포기하고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 결정적 계기가 된 삼계교와 수행 선사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도 읽을 수 있다.

또한 성리학이 성행하기 이전 동아시아에서 이상적인 군주는 유교적 이상군주인 요순(堯舜)이나 주 문왕이 아니라 불교적 이상군주인 아쇼카 왕이었으며, 여러 황제와 왕들이 아쇼카 왕의 전범(典範)을 따랐던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불교, 동아시아를 만나다 | 석길암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이너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top 10 best-selling Buddhist books.

*불서출판사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dvertisement for www.buddhabook.co.kr with phone number 02)3672-7181~5.

죽음의 길목에서 부처님이라면...

불교식 병상·임종의례 총정리 '낯은 옷을 갈아입고'

불자로 신심이 깊은 유명한 코미디언 故 이주일씨는 임종 시 개종을 했다. 일부 스님들조차 타종교 병원에서 임종을 맞을 때 주위로부터 개종을 종용받기도 한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평소 번뇌 없던 불자도 임종을 맞이할 때는 불교식으로 할지, 기독교식으로 할지 한참 갈등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개종을 결심하는 이도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절에서는 아무도 와주는 이가 없는데 비해, 환자를 자기 부모처럼 여기며 돌봐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불교도였던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열렬히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닌, 타종교로 개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데에는 불교계 임종간호 교육 양성 및 시설이 이웃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큰 이유였을 것이다. 그리고 스님을 찾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많은데, 임종법문을 하기보다는 임종 후의 49재나 장례의식에 참여하는 염불보다는 잣 법(가)에 관심을 갖는 일부 스님들의 문제도 있었을 테다. 거기에 임종을 맞이하는 이와 그들을 보살피는 이를 위한 불교 임종 준비의 체계적인 안내서가 부족했던 탓도 한몫했을 것이다.

조계종출판사와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원(연구실장 정호)은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불교식 병상례의와 임종의례를 정리한 <낯은 옷을 갈아입고>를 펴냈다.

안내서에는 강동구·구미래·김일명·이재우 등 불교상제례문화 연구위원이 집필위원으로 참가했으며 '불자로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떻게 병상·임종의례를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답하고 있다.

책은 1-5장으로 △불교의 생사관 △임종 준비 △병상례 △임종 의례 △임종 이후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의 불교의례서가 한 문으로 구성돼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반면 <낯은 옷을 갈아입고>는 의례를 한글화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방법을 소개해 조건과 시간에 따라 신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책은 크게 병상례와 임종 의례로 구분했다. 특히 죽음이 선고 됐지만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병상례에서 불자가 따라야할 방법도 상세히 설명했다.

책에는 임종을 맞이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지침과 함께 병상례와 임종 의례의 식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변화에 대한 조언까지 담았다.

또한 의례를 하는 동안 독송할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왕삼매론> <법상계> <무상계> 등의 경전들을 실었으며, 부록에는 관련 불교·불사 단체의 연락처까지 함께 실었다.

정호 스님은 "병상에 누워 죽음의 길목에서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거나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 책을 통해 건강한 생사관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이별을 통해 또 다른 뜻깊은 만남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낯은 옷을 갈아입고 |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원 편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원

이너는 기자



Advertisement for '귀사와 귀하의 홍보를 대행해 드립니다' (We will manage your and your company's promotion). Lists services like '저비용·고효율' and logos for D2M, NAVER, NATE, YAHOO!, Paran.

Advertisement for '부적총만법' (符籍總萬法) by 오남출판사. Includes a large image of the book cover and details about its content and price (80,000원).